

사설

성보보존 정부 적극 나서라

문화재는 후손들의 것이다. 현재의 우리는 이를 관리, 보존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문화재를 통해 우리 시대는 학술, 미학적 관점에서 선인들의 예지를 배우는 일을 맡고 있다. 우리의 후손들은 또 그들의 인목에서 문화재를 연구 감상하며 삶의 지평을 넓혀나갈 것이다. 문화재는 지나온 시간과 공간 속의 삶의 숨결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유·무형의 텍스트이다.

언제부터인지 문화재가 돈으로 둔갑했다. 문화재 도난범들의 조직이 마약 조직 이상으로 조직화되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최근 들어서는 문화재로 지정되지만 앉았을 뿐이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성보들이 도난범들의 집중적인 표적이 되고 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는 불상의 복장 끝까지 털어내 대상이 된다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지난 16일 조계종 총무원회는 '불교 문화재 보존 및 도난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잇따르는 불교문화재 도난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종합 대책에는 △

중단 내 문화재 교육 강화와 예산 우선 배정 △종단과 정부당국이 사찰 소장 문화재 실태 공동 조사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국가법령의 개정 △사찰 박물관의 활성화 △도난 방지 시설 설치 △문화재청 단속반의 강화와 검·경의 문화재전담반 설치 등 6가지를 담았다. 이와는 별도로 조계종은 문화재를 도난 당한 주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고 밝히고, 사찰마다 방법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했다.

종합 대책에는 문화재 교육 강화와 예산의 우선 배정 등 조계종의 자구 노력을 담은 부분도 있으나, 대부분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주문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실태 조사와 법망 미비의 강화이다. 특히 실태 조사의 실시는 문화재 정책의 기본 자료인 만큼 시급하다. 문화재 도난범들은 훔친 후 공소시효가 지나면 판매에 나선다. 허술한 법망을 이용하는 것이다. 또 조직화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다. 도난 문화재 회수율이 5% 미만이라는, 이는 완전범죄에 가깝다. 검·경의 전담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이유이다.

'대승교화종단' 역할 기대

최근 일주일 간격으로 주요 불교종단인 태고종과 진각종이 총무원장과 총무원장의 취임식을 성대히 치렀다. 태고종의 경우 지난 3개월여 극심한 내분을 겪고 난 뒤라 새 원장의 취임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 각별했다. 만장일치로 추대된 총무원장인 만큼 무엇보다 찢겨진 종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갈등을 완전 해소시켜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었을 것이다.

태고종 총무원장 혜초스님과 진각종 총무원장 효암 대정사는 취임사에서 종단 화합과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시대가 요구하는 종단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종단의 체질 개선과 제도개혁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것이라 취임 일성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종단의 모든 제도와 조직을,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고, 그에 걸맞는 포교에 나설 수 있도록 과감히 개혁하고 개선할 때 비로소 진정한 대승교화종단으로서의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불교

는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특히 정신문명과 가치관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이끌어 나갈 수행자상을 요구받고 있다. 물론 종단의 개혁이나 발전적인 개선은 구호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종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적이고 거시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반드시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안정적인 재정 확보 등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복지활동의 확대, 청소년 포교와 인재 양성, 환경 등 종단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급한 일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불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정진할 수 있는 수행풍토 조성에 관심을 갖고 여건을 만들어 주기를 요청한다. 혜초 원장은 풍부한 경륜과 원만한 덕을 갖추어 종단 내외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고, 효암 원장 역시 강한 추진력과 헌신적인 열정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만큼, 두 원장이 종단 발전은 물론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한다.

장병 46% "입대후 불교입문"

포교사단 1850명 설문... "법회 프로그램 개발 시급"

군 불자의 80.5%가 법회참석 후 생활태도와 인관관치 종교관 등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했다. 또 군 입대 후 불교에 입문한 군 장병이 45.6%에 이르며, 제대 후에도 불교신행을 계속할 계획(72.2%)이며, 포교에 나서겠다는 응답도 48.3%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기방)이 2000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직접 관리하는 56개 법당에 나오는 군불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한 군 장병 의식조사에서 밝혀졌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군 불자의 경우 장병의 82.1%, 하사관의 96.7%가 훈련소에서 처음으로 법회에 참석했다고 응답해 신병훈련소에 대한 포교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입문 이유로는 가족 친지의 권유(60.3%), 군부대의 1인1종교 정책(27.2%)등의 순이며, 법회

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군 생활에 도움(22%), 불교를 알수 있는 좋은 기회(20.7%), 입대전 불교활동 영향(20.7%), 타종교보다 좋다고 여겨서(13.6%), 불교에 대한 호기심(12.1%)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군 법회 참여도는 장병의 62.8%가 월 2회 이상 꾸준히 참석하고 있으며, 49.4%가 수계를 받은 반면 50.6%는 수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병들은 군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기도·수행(42.2%), 상담(16.4%), 불교문화 및 교양(14.9%)순으로 선호했다. 군 법회 운영과 관련해 30분(34.8%)동안 생활법문(44.4%)위주로 법문 해讀하면 한다고 응답했다. 또 법회에서 받고 싶은 선물로는 합장주 등 불교용품(60.5%), 불교도서(15.2%), 법당에서 찍은 사진(7.6%)등이라고 응답했다.

군법회의 개선 방향으로는 법회 프로그램개발(44.4%), 법회 홍보(22.2%) 대중 공양(18.8%), 법회 전담자(11.7%)등이며, 국방부 등 소속 기관으로 부터 재정 지원(48.4%), 군 법사 등 인력 지원(22.1%), 정책 지원(17.5%), 행정 지원(8.2%)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포교사단 하영태국장은 "군 입대 전 장병들의 62%가 대학생이고, 군 생활의 여가활동에 대한 변화를 감안할 때 가장 시급한 것은 프로그램 개발로 귀결된다"며 "군 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종단과 포교사단, 군 법당 인건 사찰, 신병단체들이 포교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과 조계종 포교사단은 26일 오후 4시 서울 봉은사에서 군 포교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군 포교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원우 기자 www@buddhapia.com

포교사단 1850명 설문... "법회 프로그램 개발 시급" (Continuation of the article above)



◇진각종 제26대 효암총무원장 취임식이 17일 서울총인원에서 개최됐다.

"참여·화합으로 밀교 중흥"

진각종 효암총무원장 취임식... 1천여명 참석

진각종 제 26대 효암 총무원장 취임식이 17일 서울 총인원에서 각계 진각종 총인을 비롯 1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성대히 봉행됐다. 이날 취임식은 삼기명, 현화정공, 발원문 봉독, 제26대 성초 총무원장 이임사, 제26대 효암 총무원장의 취임선서, 취임사, 축사, 축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효암 새 총무원장은 취임사에서 "대승적 삶과 밀교중흥을 위해 종단을 참여와 화합, 회합의 구조로 새롭게 정립하겠다"고 전제하고 "신교도 지도자를 양성하고 신교도가 각급 단위에서 주체로 나서서 참여시스템을 개발 실행하고, 포교 교육 복지 영역을 서로 네

트워크화시켜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겠다"며 종단 기획실을 신설하여 중앙과 지방의 바람직한 관계설정과 더불어 지방화시대에 필요한 정책들을 검토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종단협 회장 정대스님,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박준영 청와대불자회장, 김중권 민주당 대표 표창고위원, 함종한 한나라당불교신도회장 등은 각각 축사로서 효암 총무원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진각종의 도약을 기원했다. 한편 조선불교도연맹 박대환 위원장도 축하메시지를 보내 진각종과의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 강화를 기대했다. 이경숙 기자



군 포교는 즐거워

정화회의 총무원장 부존재소 취하

총무원장 자격소는 서류가 담했던 종도들은 즉각 참회하고 종단의 안정과 화합의 대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영스님은 99년 12월 소를 제기했으며, 지난 2월 2일 서울지법 민사17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항소했다. 중앙총무원장 자격상실 확인청구 소송은 1, 2심에서 모두 정화개혁회의측이 패했으나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정성운 기자

정화회의 총무원장 부존재소 취하 (Continuation of the article above)

“멸빈징계스님 사면 복권”

조계종 전국신도회 건의

조계종 전국신도회(회장 선진규)는 19일 불교방송 3층법당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종단의 각종 분규 이후 멸빈·징계된 스님들의 사면 복권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신도회는 건의문을 통해 "종단분규로 역대 종단 간부를 지낸 스님과 역대 신도회 소임자들이 상처를 받았었다"며 "불교의 장래를 생각하여 화합과 포용으로 부처님의 동체대비심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신도회는 이날 30명의 발표자가 참가한 가운데 설법 시연대회를 개최했다. 김원우기자

“새만금 간척 중지 촉구”

조계종 본사주지연·승가대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연합회(회장 법장)는 15일 회의를 열고 새만금 간척사업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하여 자연환경과 국익을 위하여 신중히 연구검토하여 심사숙고하라"고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7대종교 사형제폐지 토론회

내달 2일 국회의원회관

불교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등 7대 교단은 내달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토론회 및 문화제를 개최한다.

1부 토론회와 2부 문화제로 구성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기찬 변호사가 '사형,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주제로 기조발제하며, 수석사 주지 법장스님과 정대철 민주당 의원이 토론에 나선다. 토론에 앞서 전직 교도관의 사형수에 관한 증언을 듣는 자리도 마련돼 사형제도 폐지의 종교적 당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가수 안치환씨의 공연으로 시작되는 문화제는 사형수가 남긴 편지 낭독과 피해자 가족이야기, 김수환 추기경의 '내가 본 사형제도' 발표, 불교계의 사형수들에 대한 영가 천도제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종교계는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도 채택한다. (02)734-6401. 김재경기자

“부처님이 성상담 한다면”

봉선사서 세미나

성상담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성상담에 대한 불교적인 접근 방법을 조망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불교성상개발원(원장 이근후)은 31일부터 6월 1일까지 1박2일간 경기도 남양주시 봉선사에서 '산사에서 만나는 불교와 성상-성상담, 바로 보고 바로 받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부처님이 성상담을 하신다면' (이근후, 불교성상개발원 원장), 경전에 나타난 성상(박경준, 동국대 교수)등의 강연과 성상담 사례 발표, 조별 토론(홍육근, 자비회전화 상담원), 성상담 바로 받기 토론(윤경혜, YMCA 책임상담원)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김원우기자

紫微垣과 大院君

紫微垣과 大院君 韓國의 爲政者에게 告함

新羅의 元曉聖師도 義湘祖師와 함께 中國으로 佛敎遊學하고자 唐津의 內浦港口로 乘船하기 爲해 가든 途中 紫微垣을 發見하고 祖國의 民族의 矜持를 갖고 忽然히 回程 하였다는 說이 있는가 하면 唐의 風水宗匠인 一行禪師와 杜思忠도 紫微垣을 보고 歸國하여 언젠가는 新羅땅에서 世界를 統一하는 天子가 出現할 것이라고 豫言하고 記錄은 禁忌하였다. 또 高麗初 風水의 鼻祖인 道詵國師와 朝鮮의 無學國師도 紫微垣을 보고 將次 우리나라가 世界의 宗主國이 될 것이라고 秘傳하였다. 朝鮮末의 興宣大院君이 鄭萬仁禪師에게 紫微垣의 圖得을 懇請하였으나 不可理由로서 첫째 封建王朝體制가 崩壞하는 時代에 可用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대의 所有가 아니니 後日 有德君子를 기다려야 한다고 斷乎히 拒絕하였다. 그리고 只今の 德山 땅에 當代君

王之地를 點穴하여 그의 父親南延君을 遷墓케 하였다. 그리하여 一年後에 命福(고종황제)을 出生하였고 十一年만에 이르러 世子册封과 同時 攝政 大院君이 되었다. 그 後 萬仁禪師는 紫微垣 山圖의 一幅을 大院君에게 傳한 다음 곧 바로 海印寺를 거쳐 紫霞島로 晦名蹈跡하였다. 大院君은 이것을 刺繡하여 居室에 걸어두고 世界風水界에 있어 最上의 絶倫이라고 感嘆하였다 한다. 오늘날까지 규장각에 所藏되었다는 說이 있다. 이 紫微垣 天子之地를 韓國正統風水大家인 哲山 丁世源明師께서 五十四年間 踏山끝에 마침내 機緣을 통하여 發見하였다. 이것은 우리 韓國이 國運隆昌할 時節因緣이 到來한 것이며 아울러 南北統一은 勿論 韓民族의 世界宗主化 時代가 開幕될 것을 豫告하는 瑞兆로 確信하는 바이다.

辛巳年 五月 十五日

韓國正統風水學會 會員一同 白

H·P 011-747-5035, 017-290-1289